

## 융복합시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이미라, 전현숙\*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Mira Lee, Hyensook Jeo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과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설계된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D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생으로 임상실습에 2학기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27명에게 2018년 9월, 설문지를 배부하고 222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과 임상실습만족도 네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정도가 영향요인이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9%였다.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정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이미지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학생이나 환자가 가질 수 있도록 간호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간호사이미지, 융합,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s of self-efficacy, nurse image, vocational ident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them, and finally to investigate predictors affecting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27 nursing students in D city who were surveyed in September 2018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Self-efficacy, nurse image, vocational ident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related positively among variables.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efficacy, nurse image, vocational identity, health condition, relationship with practical colleague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patient's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were influential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ose factors explained 17.9% of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patient's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 image. In order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hole nurses should consider helping nursing students and patients to build up positive nurse imag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Converg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ocational identity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Research Grant of 2018

\*Corresponding Author : Hyensook Jeon(clearhs@hit.ac.kr)

Received March 4,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9, 2019  
Published May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질병 중증도의 심화, 대상자의 건강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복잡한 임상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1]. 현재,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모든 간호학과 학생이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하는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 환자 권리의 확대, 병원 내 감염 위험성 등의 원인으로 우수한 임상실습기관 확보가 어려우며, 실습의 대부분이 관찰교육 위주인 상황이다. 임상실습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상태와 반응을 파악하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서[2],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고 가치관과 태도 및 간호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3].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내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으면 간호직에 대한 정체성이 결여되고 졸업 후 신입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임상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중 하나로서[5] 간호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평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보다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6]. 그러나 임상실습 현장에 투입된 간호대학생은 새로운 교육 환경인 임상실습 현장에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기 쉬우며,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이나 졸업 후 간호사로서 일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7].

간호사이미지란,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으로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아상이 기본이 되지만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4]. 이러한 간호사이미지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변화하고 간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미래의 간호현장에서 이루어질 간호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또한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간호대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임상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9].

직업정체성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에 대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 직업적 영역에 국한되는 개념이다[10].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으며, 높은 직업정체성은 역할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한다[1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임상실습스트레스[3], 학생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12], 전공만족도[10,13] 등이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성향을 반영하는 자기효능감,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간호사이미지,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존재 본질을 반영하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적인 임상실습 교육 및 지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임상실습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임상실습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호사 이미지,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이고, 임상실습을 2학기 이상 경험한 3,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를 한 자로 편의 표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제외하였다. 총 22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223부를 수거하였으며, 설문문항의 불충분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2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G-Power Ver. 3.1.7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f^2$ ) .15, 검정력(power) .95, 5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52명으로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 2.3 연구도구

###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 등[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3문항의 척도를 Hong[15]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88이었다.

### 2.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Yang[4]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9]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다. 도구는 긍정적 진술 24문항과 부정적 진술 3문항으로,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Lee 등[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 2.3.3 직업정체성

직업정체성은 Holland, Daiger & Power[16]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하위 영역 중 VI(Vocational Identity Inventory Scale)를 Kim[1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Kwon[18]이 간호대학생의 Vocational identity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도구는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2.3.4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13]이 개발한 도구와 Lee[19]가 개발한 도구를 Lee, Kim과 Kim[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1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교과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 만족도 3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Kim과 Kim[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이고 임상실습을 2학기 이상 경험한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서면동의 한 22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학생 스스로 작성하게 한 후 학생대표를 통해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으며, 22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223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2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검증을 하였다.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연구결과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IRB승인(1041490-201805-HR-005)을 받은 후 수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도중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는 자유로운 응답을 위하여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여자가 86.0%이며, 24세 이상이 23%이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자가 9.1%이었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8.6%가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임상실습 중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6.4%가 ‘어려운 편’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간호대학생 만족 정도에서는 22.1%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어려운 대인관계로는 66.2%가 ‘간호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임상실습시 어려운 점으로는 ‘실습과제(49.1%)’와 ‘할 일이 없는 것(15.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2)

| Variables                               | Categories                                     |     |      | Self-Efficacy |                  | Nurse Image |                | Vocational Identity |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
|---|--|-----|------|---------------|------------------|-------------|----------------|---------------------|-----------------------|--------------------------------|----------------|
|   |  | n   | %    | Mean (SD)     | t/F(p) Scheffe   | Mean (SD)   | t/F(p) Scheffe | Mean (SD)           | t/F(p) Scheffe        | Mean (SD)                      | t/F(p) Scheffe |
| Gender                                  | Male   | 31  | 14   | 3.46 (.34)    | .805 (.422)      | 3.91 (.46)  | .336 (.737)    | 2.60 (.39)          | 1.005 (.316)          | 3.40 (.47)                     | 2.161 (.032)   |
|   | Female   | 191 | 86   | 3.38(.51)     |                  | 3.87 (.64)  |                | 2.51 (.49)          |                       | 3.22(.42)                      |                |
| Age                                     | ≤ 22   | 92  | 41.4 | 3.37 (.53)    | .419 (.658)      | 3.90 (.63)  | .964 (.383)    | 2.50 (.49)          | 1.437 (.240)          | 3.23 (.39)                     | 1.114 (.330)   |
|   | 22-23  | 79  | 35.6 | 3.39 (.47)    |                  | 3.92 (.62)  |                | 2.49 (.46)          |                       | 3.21 (.40)                     |                |
|   | ≥ 24   | 51  | 23.0 | 3.45 (.46)    |                  | 3.77 (.59)  |                | 2.62 (.47)          |                       | 3.32 (.53)                     |                |
| Grade                                   | 3  | 117 | 52.7 | 3.35 (.44)    | -1.338 (.182)    | 3.82 (.60)  | -1.433 (.153)  | 2.50 (.47)          | -.764 (.446)          | 3.28 (.41)                     | 1.382 (.168)   |
|   | 4  | 105 | 47.3 | 3.44 (.54)    |                  | 3.94 (.63)  |                | 2.55 (.48)          |                       | 3.20 (.45)                     |                |
| Health Condition                        | Good   | 202 | 90.9 | 3.42 (.49)    | 2.180 (.030)     | 3.89 (.62)  | .675 (.501)    | 2.54 (.46)          | 1.883 (.061)          | 3.26 (.41)                     | 2.117 (.035)   |
|   | Bad  | 20  | 9.1  | 3.16 (.50)    |                  | 3.79 (.56)  |                | 2.33 (.60)          |                       | 3.05 (.53)                     |                |
| Motivation for admission                | Grades in high school <sup>a</sup>             | 29  | 13.1 | 3.29 (.44)    | 4.962 (.002) b>c | 3.75 (.74)  | 1.042 (.375)   | 2.36 (.41)          | 6.547 (<.001) a<b b>c | 3.33 (.37)                     | 2.277 (.081)   |
|   | 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 <sup>b</sup> | 58  | 26.1 | 3.58 (.55)    |                  | 3.98 (.57)  |                | 2.74 (.49)          |                       | 3.32 (.44)                     |                |
|   | Getting a job easily <sup>c</sup>              | 96  | 43.2 | 3.29 (.44)    |                  | 3.88 (.60)  |                | 2.45 (.42)          |                       | 3.16 (.43)                     |                |
|   | Recommendation or Others <sup>d</sup>          | 39  | 17.6 | 3.48 (.53)    |                  | 3.86 (.64)  |                | 2.50 (.48)          |                       | 3.30 (.37)                     |                |
| Academic achievement                    | < 2.9 <sup>a</sup>                             | 36  | 16.2 | 3.27 (.41)    | 3.905 (.022) a<c | 3.96 (.64)  | .721 (.487)    | 2.49 (.52)          | 1.905 (.151)          | 3.38 (.46)                     | 1.984 (.140)   |
|   | 3.0 ~ 3.9 <sup>b</sup>                         | 162 | 73.0 | 3.39 (.51)    |                  | 3.85 (.62)  |                | 2.50 (.47)          |                       | 3.21 (.43)                     |                |
|   | 4.0 ≤ <sup>c</sup>                             | 24  | 10.8 | 3.62 (.45)    |                  | 3.97 (.57)  |                | 2.70 (.41)          |                       | 3.25 (.36)                     |                |
| Friendly relationship                   | Good   | 203 | 91.4 | 3.42 (.48)    | 2.627 (.009)     | 3.90 (.62)  | 1.928 (.055)   | 2.54 (.46)          | 1.404 (.162)          | 3.25 (.42)                     | 1.168 (.244)   |
|   | Bad  | 19  | 8.6  | 3.11 (.51)    |                  | 3.62 (.56)  |                | 2.38 (.64)          |                       | 3.13 (.52)                     |                |
| Relationship with a practical colleague | Good   | 208 | 93.7 | 3.42 (.48)    | 2.876 (.004)     | 3.92 (.58)  | 3.793 (<.001)  | 2.53 (.46)          | 1.385 (.167)          | 3.26 (.42)                     | 2.938 (.004)   |
|   | Bad  | 14  | 6.3  | 3.03 (.49)    |                  | 3.29 (.88)  |                | 2.35 (.69)          |                       | 2.92 (.51)                     |                |

|   |  |     |      |            |               |            |              |            |               |            |               |            |
|---|--|-----|------|------------|---------------|------------|--------------|------------|---------------|------------|---------------|------------|
| Satisfaction with Patient's Recognition of NS | Satisfaction                           | 173 | 77.9 | 3.46 (.48) | 3.648 (<.001) | 3.93 (.60) | 2.495 (.013) | 2.59 (.43) | 3.999 (<.001) | 3.31 (.41) | 4.925 (<.001) |            |
|   | Dissatisfaction                        | 49  | 22.1 | 3.17 (.48) |               | 3.69 (.64) |              | 2.29 (.54) |               | 2.99 (.42) |               |            |
| Difficult person in practice                  | Nurses <sup>a</sup>                    | 147 | 66.2 | 3.43 (.50) | 1.583 (.194)  | 3.95 (.61) | 5.659 (.001) | 2.52 (.49) | .120 (.948)   | 3.23 (.44) | 2.274 (.081)  |            |
|   | Other professions <sup>b</sup>         | 17  | 7.7  | 3.45 (.41) |               | 3.88 (.55) |              | 2.47 (.53) |               | 3.48 (.29) |               |            |
|   | Patient, guardian <sup>c</sup>         | 30  | 13.5 | 3.31 (.47) |               | 3.92 (.60) |              | a>d        |               | 2.55 (.42) |               | 3.26 (.39) |
|   | Practical colleague <sup>d</sup>       | 28  | 12.6 | 3.22 (.52) |               | 3.42 (.61) |              | c>d        |               | 2.51 (.44) |               | 3.15 (.49) |
| Difficult point in practice                   |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 26  | 11.7 | 3.26 (.42) | 3.292 (.012)  | 3.71 (.65) | 1.375 (.244) | 2.30 (.48) | 3.137 (.016)  | 3.39 (.33) | 2.375 (.053)  |            |
|   | Problem-solving                        | 32  | 14.4 | 3.33 (.37) |               | 3.86 (.58) |              | 2.49 (.42) |               | 3.38 (.36) |               |            |
|   | Skills                                 | 19  | 8.6  | 3.13 (.36) |               | 3.68 (.73) |              | 2.33 (.38) |               | 3.21 (.46) |               |            |
|   | Nothing to do                          | 36  | 16.2 | 3.54 (.55) |               | 3.98 (.69) |              | 2.57 (.33) |               | 3.22 (.51) |               |            |
|   | Practical assignment                   | 109 | 49.1 | 3.44 (.52) |               | 3.93 (.64) |              | 2.60 (.52) |               | 3.18 (.42) |               |            |
|   |  | 222 | 100  | 3.39(.49)  |               | 3.89(.62)  |              | 2.52(.47)  |               | 3.24(.43)  |               |            |

\* NS: Nursing Students

### 3.3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Table 2는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r=.232, p<.001$ ), 직업정체성( $r=.258, p<.001$ ) 및 간호사이미지( $r=.289, p<.001$ )에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정체성은 간호사이미지( $r=.401, p<.001$ )와 자기효능감( $r=.464,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이미지 또한 자기효능감( $r=.336,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222)

|                                | Self-Efficacy | Vocational Identity | Nurse Image |
|--------------------------------|---------------|---------------------|-------------|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232(<.001)   | .258(<.001)         | .289(<.001) |
| Self-Efficacy                  | 1             | .464(<.001)         | .336(<.001) |
| Vocational Identity            |               | 1                   | .401(<.001) |
| Nurse Image                    |               |                     | 1           |

### 3.4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이중 명목척도인 건강상태,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간호대학생 만족 정도를 가변수로 변환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0.74~0.94의 범위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66~1.447의 범위로 기준 10을 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에서 2.037로 나타나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임상실습만족도 모형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7.786, p<.001$ )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것은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간호대학생 만족 정도( $\beta=-.222, t=-3.315, p=.001$ )와 간호사이미지( $\beta=.180, t=2.554, p=.011$ )로 17.9%의 영향력을 보였다.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22)

|   | B     | SE   | $\beta$ | t      | p     | R <sup>2</sup> | adj R <sup>2</sup> | F(p)          |
|---|-------|------|---------|--------|-------|----------------|--------------------|---------------|
| Constant                                      | 2.888 | .314 |         | 9.188  | <.001 | .179           | .156               | 7.786 (<.001) |
| Self-Efficacy                                 | .050  | .063 | .059    | .798   | .426  |                |                    |               |
| Vocational Identity                           | .078  | .067 | .088    | 1.177  | .240  |                |                    |               |
| Nurse Image                                   | .124  | .049 | .180    | 2.554  | .011  |                |                    |               |
| Health condition                              | -.096 | .095 | -.064   | -1.010 | .314  |                |                    |               |
| Relationship with a practical colleague       | -.107 | .117 | -.061   | -.912  | .363  |                |                    |               |
| Satisfaction with Patient's Recognition of NS | -.229 | .069 | -.222   | -3.315 | .001  |                |                    |               |

\* NS: Nursing Students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에서 간호학과 특성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86%로 많았으며, 연구에 참여한 66.2%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가장 어려운 대인관계자로서 간호사를 꼽았다. 환자나 보호자, 또는 실습동료와의 관계보다 간호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존재인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특징적인 연구결과 중 하나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즉, 환자가 간호대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학생이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연구 결과,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은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임상실습만족도 모든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 나갔을 때, 환자가 간호 실습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고 느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의 49.1%의 학생이 '실습과제'로, 16.2%가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임상실습의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 인력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간호대학생의 수는 해마다 증가되어가고,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되어 관찰 위주의 실습을 하다 보니 임상실습 현장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을 실습과제로 대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해야 하지만, 실제 임상실습 시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고, 과제는 임상실습과 별개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실습 중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 입학동기, 성적, 교우관계,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 실습시 어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실습시 가장 큰 어려움이 술기(skill) 부족일 때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전 기본적인 술기 연습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39±(0.49)점/5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Kwon과 Kim[20]연구에서의 3.44±(0.51)점, Koo와 Im[21]연구에서 3.5점 이상, Park과 Jun[21]연구에서 3.6점보다 낮은 점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습에 적극적이며 임상실습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Koo와 Im[21]의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본 연구대상 학생들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낮고 간호술기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제시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사이미지 평균은 3.89±(0.62)점/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Lim과 Jo[22]의 4.01±(0.50)점보다 낮은 점수이며, Kim과 Kwon[23]의 3.82점, Lee[24]의 연구 결과 3.68점, Lee, Kim과 Kim[9]의 3.49점보다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와 선행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지만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임상실습 여부나 임상실습 기간 등이 간호사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 간호사이미지는 실습시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임상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동료와 환자가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하위 요인별로는 '전문적 이미지'가 평균 4.06±(0.88)점/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Kim과 Kim[9], Lee[24], Lim과 Jo[22]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평균 점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문적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일치하여, 간호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항별로는 '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하다'가 4.20±(0.75)점/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4.18±(0.83)점 순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이미지' 요인에서는 평균 3.72±(0.74)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간호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대학병원 간호사의 자살로 대두된 간호사 조직문화에 대한 일반인들과 간호계의 관심이 고조된 상태

에서, 인터넷과 SNS상에서 ‘간호사’로 검색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단어는 ‘태움문화’, ‘극한직업’ 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협회와 간호학회를 통한 전면적인 간호 조직문화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 1위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25]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직업정체성 평균은 2.52±(0.47)점/4점이었으며, 직업정체성은 입학동기,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 정도, 임상실습시 겪는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Lee와 Kim[10]연구에서 2.72±(0.45)점, Cho와 Lee[26]연구에서의 평균 2.67점보다 낮은 점수였으며 두 선행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입학했을 경우에 직업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느낄 때, 임상실습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술기 부족’이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의 문제일 때 직업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3.24±(0.43)점/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10]연구에서 3.42±(0.46)점과 Kwon과 Kim[20]연구 결과 3.32점, Lim과 Jo[22]의 3.48±(0.46)점보다 낮았으나, Ji와 Lee[27]의 3.04점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성별, 건강상태, 실습 동료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Jung[28]과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 교우관계, 성적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Lee와 Kim[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즉, 일반적인 교우관계의 좋고 나쁨과 실습을 같이 하는 실습 동료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으며, 평소 교우관계보다는 임상실습을 같이 하는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 때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에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시간의 마련이나 관계를 고려한 실습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 문항은 임상실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으나,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간호대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인식하는 개념이므로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학생은 임상실습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느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환영받고 존중받을 때 학생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잘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지적한 Bradbury-Jones, Sambrook, & Irvine[2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30],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임상실습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볼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임상멘토링을 위한 열쇠는 간호사의 멘토십 질을 보장하는 것에 있으므로[3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간호계 전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10].

임상실습만족도 하위 요인별로는 ‘실습교과’와 ‘실습평가’ 만족도가 평균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 만족도가 2.82±(0.8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Lee, Kim과 Kim[9], Park, Lee와 Gu[32], Lee와 Kim[10]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었으나 ‘실습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이라는 것은 일치했다. 또한, ‘실습내용’ 영역 중 특히, ‘임상실습시 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만 반복한다’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그 다음으로 ‘실습 중 때때로 할 일이 없음을 느낀다’가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도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평가지침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실습교과’, ‘실습평가’,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학생이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최소화되고 단순 관찰이나 활력징후 측정만을 할 수 있는 임상 실습내용임이 그 원인으로 사료되므로[10],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선행연구와 다르게 부각된 점은 실습지도 하부요인에서 ‘실습시 부과되는 과제물의 양은 적당하다’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입원 중 대상자의 권리, 감염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실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임상실습 중 부과되는 과제물의 양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실습과

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며, 이로 인해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중 과제량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직업정체성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체성은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이미지 또한 자기효능감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Kim & Kim[9]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간호사이미지 자전공만족도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는 Kwon과 Kim[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는 직업정체성과 순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Lee와 Kim[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이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간호사로서 긍정적인 직업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정도가 영향요인이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9%였다.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정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이미지였다. 이러한 임상실습현장에서 학생이 인지하는 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나 학생이 느끼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실습환경에 대한 인지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연령과 간호사이미지였다는 Lee, Kim & Kim[9]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며,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간호사이미지였다는 Kwon과 Kim[20]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학생 만족정도’는 결국,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은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와 부합되고, 환자 인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는 학생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연계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현장지도자인 실무간호사나 지도교수와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33], 환자의 간호대학생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습과제를 줄이고,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간호사이미지 개선이 최우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는 주된 경로를 파악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간호사이미지를 제거함으로써 간호 대상자와 일반인들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협회와 학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원활한 실습동료관계 유지를 위해 실습조 편성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임상실습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된 실습과제와 할 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간호사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직업정체성, 임상실습만족도가 최근 2년여 전에 시행되었던 선행 연구[10,20,22]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 유무, 경험 기간, 환경 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며, 본 연구가 실습교육에 대한 조사자료의 한계가 있어 교내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이 연계된 연구와 간호학과와 특성상 남녀비율의 차이로 인한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보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환자의 인식이나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교육의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데 있어 질적연구도 의미있을 것이라 사료되기에 이에 대한 연구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 [2] S. O. Shin. (2018). Affecting factors of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85-91.  
DOI : 10.22156/cs4mb.2018.8.6.085
- [3] M. O. Kim & J. A. Cha. (2018).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fter



-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im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247-256.  
DOI : 10.14400/JDC.2018.16.9.247
- [4]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 Korean Acad Nurs Adm*. 4(2), 289-306.
- [5] E. Gil. (2018).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13(1), 43-51.  
DOI : 10.15715/kjhcom.2018.13.1.43
- [6] N. Kim & K. Kim. (2011).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41-51.
- [7] M.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17(2), 216-225.
- [8] H. S. Jeong & Y. S. Yoo. (2010).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29-38.
- [9]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DOI : [www.dbpia.co.kr/Article/NODE06641296](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1296)
- [10] M. R. Lee & M. J.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197-208.  
DOI : 10.5762/kais.2018.19.6.197
- [11] L. Sun, Y. Gao, J. Yang, X. Zang & Y. Wang. (2016). The Impact of Professional Identity on Rol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Int J Nurs Studies*, 63, 1-8.  
DOI : 10.1016/j.ijnurstu.2016.08.010
- [12] M. K. Jeon & M. S.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40-48.
- [13]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DOI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334886>
- [14]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15]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6]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9), 1191-1200.
- [17] B. W.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8] Y. H. Kwon. (2002). *Effect of Ready Planned Self-esteem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19] S. Le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333-348.
- [20] Y. E. Kwon & S. Y. Kim. (2018).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4(1), 80-88.  
DOI : 10.5977/jkasne.2018.24.1.80
- [21] H. Y. Koo & H. S. Im. (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 311-321.
- [22]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 10.5762/KAIS.2016.17.4.556
- [23] Y. Kim & Y. Kwon. (2018).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15-224.  
DOI : 10.14400/JDC.2018.16.2.215
- [24] K. H. Lee. (2010)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26-34.

[25] N. McCarthy. (2019). *America's Most And Least Trusted Professions*. statista. (Online).  
DOI : <https://statista.com/chart/12420/americas-most-and-least-trusted-professions/>

[26]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27] E. M. Ji & J. H. Lee. (2014).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124-1140.

[28] Y. M. Jung. (2016).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55-65.  
DOI : 10.15207/JKCS.2016.7.6.055

[29] C. Bradbury-Jones, S. Sambrook & P. Irvine. (2011). Empowerment and Being Valued: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31, 368-372.

[30] P. Pearcey & P. Draper. (2008). Exploring Clinical Nursing Experiences: Listening to Student Nurses. *Nurse Education Today*, 28, 595-601.

[31] B. Skela-Savic & A. Kiger. (2015). Self-assessment of Clinical Nurse Mentors as Dimensio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 Capability of Developing Ethical Values at Nursing Students: A Correlational Research Study. *Nurse Education Today*, 35(10), 1044-1051.

[32] M. Park, M. Lee & J. Gu. (2011).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9(2), 111-123.

[33] S. J. Han. A. (2000).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6(1), 132-146.

이 미 라(Lee, Mira)

[정회원]



- 2002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
- E-Mail : mrlee@hit.ac.kr

전 현 숙(Jeon, Hyensook)

[정회원]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만성질환자간호
- E-Mail : clearhs@hit.ac.kr